



국 내 소 식

통산부, 여름철 전력예비율 7% 확보 ...전력수급회의서 확정

통산부는 6월 8일 여름철 전력수급안정대책회의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개최, 7~8월중 최대전력 수요시 전력공급예비율을 7% 이상 유지키로 했다. 이상고온이나 발전소 불시정지 등 최악의 경우에도 예비율 5%를 확보키로 했다.

박재윤 통산부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최대전력수요를 3천2백64만3천kW를 예상, 공급능력 3천4백92만5천kW를 확보함으로써 지난해와 같이 공급예비율 7%를 유지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통산부 관계자인 한준호 자원정책실장 내정자, 박수훈 전력심의관, 김영준 전력정책과장, 이영수 수화력발전과장, 이장훈 전력정책과 수급담당사무관을 비롯 한전관계자인 이종훈 사장, 이혜수 판매사업단장, 박병무 영업처장, 이기성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홍세기 한국전기안전공사이사장, 이호림 한국전력기술사장, 이원 한전기공사장, 신정식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운회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최현수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권용득 대한전기기사협회회장, 윤희우 대한전기협회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확정된 여름철 전력수급안정대책은 6월 11일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통산부와 한전은 이번 회의에서 공급능력 확충을 위해 화력발전소 상향운전으로 10만2천kW를 절감키로 했다.

내년, 전기공사법 대폭 개정 예정

내년중 전기공사법법이 대폭 손질된다.

'97년 정부조달협정 발효와 WTO 출범 등으로 전기공사업체 시장구도가 변화하고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공사법법은 '76년 전면 개정이후 20여년동안 법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현실에

등떨어지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박운회)는 전기공사법법의 합리적 개정을 위해 5월 31일 한국생산성본부와 「전기공사업 경쟁력강화 방안 연구」를 '96년 10월까지 용역·계약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개정시안을 마련, 통산부에 건의, '97년 9월 정기국회상정을 목표로 하고있다.

법 개정 방향은 공사업종 및 면허체계 개편, 공사입찰제도 개편, 전기공사 기술인력 확보 및 시공관련제도 개편, 전기공사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협회 기능활성화 방안 등 4개 분야이다.

우선 면허체계 개편과 관련 제1종 및 제2종 공사업 단일화, 면허제도의 등록제 전환, 면허권의 민간 위탁방안이, 공사입찰제도 개편과 관련수급 한도액제 개선, 경쟁제한제도 개선 및 책임시공제도 도입, 원하도입 관계 및 전문공사 수급영역 확보방안 등이 검토된다.

또한 기술전문 분야별 전문화 방안과 전기공사 분리발주제도의 강화, 협회기능 활성화 방안이 규정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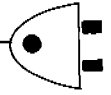
녹색조명운동 2차 약정식 및 절전 간담회 개최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성)은 '녹색조명운동'의 실천 주체인 기업체의 참여도를 높이고 범국민적 홍보를 위하여 「녹색조명 제2차 약정식」을 개최하고 여름철 전력수급안정에 있어 민간부분의 협조방안 모색을 위한 민간단체장들과의 「절전간담회」를 지난 6월 18일(화)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약정식에서는 현대자동차, 유공, 삼성중합화학, 두산건설 등 24개기업이 각 사업장의 조명기기를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계획에 대한 약정을 했다.

이는 지난 3월에 23개기업들의 1차 참여약정식 이후 두번째 행사로서 최근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전력수요의 효과적 관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약정식 행사후, 곧 바로 통상산업부, 에너지관리



공단 등 에너지정책관계자와 대한전기기사협회, 경실련, 시민의 모임 등 20여개 민간단체장과의 절전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어려운 여름철 전력수급사정에 대한 정부의 대책설명과 기업, 가계 등 민간부분에서의 참여요청, GEF 사례발표, 범국민 절전홍보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서울유일ENG 변압기 절연유 열화상태 측정장치 개발

전력용 변압기와 배전용 변압기의 절연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절연유의 열화 정도를 활전상태에서 측정함으로써 변압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품화됐다.

전기설비 진단 및 감리전문업체인 서울유일엔지니어링(대표 강창원)이 전기연구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발한 이 시스템은 기공세라믹을 주재료로 제작한 열화센서를 이용, 전력용 변압기와 배전용 변압기의 절연유 열화상태를 정밀분석하여 변압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측정기술로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에도 특허출원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기술인 절연유 열화센서는 전기적인 신호처리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변압기 설계시나 수리시 센서를 변압기속에 내장시킨후 전기신호용 리드선으로 절연유의 열화상태를 측정하는 방식이며 이는 현재 선진국에서도 개발되어 있지 않은 기술이다.

또 전기가 흐르고 있는 활전상태에서 측정할 수 있어 수시로 변압기의 열화 정도를 점검할 수 있으며, 측정대상이 변압기 내부에서 발생된 도전성 입자이기 때문에 기존의 가스분석장치에 비해 비용이 대단히 저렴할 뿐만 아니라 소요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주상변압기의 경우 변압기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절연유 열화측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 자가수용가는 물론 한전 또한 전력의 공급과 사용에 대단한 불편을 겪어 왔다.

유일엔지니어링은 전기연구소와 함께 실시한 실

증시험을 토대로 올해 상품화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 외 소 식

소비전력의 경고·검색 전력측정기

미국 익스테크 인스트루먼트사에서는 최근 휴대용 전력측정기(모델명 38081)를 개발했다. 이 측정기는 배터리를 사용해 작동되며 기기에 4개의 액정표시장치(LCD)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액정표시장치는 와트(W), 역률 또는 VA, 전압 또는 HZ, 소비전력에 대한 경고나 검색 등을 나타낸다.

이외에도 이용자들이 PC를 사용해 얻을 수 있는 윈도우에 기초를 둔 데이터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출력하는 기능을 갖는다.

예비전력 제공회로 작동되는 비상전원장치

최근 미국 듀알 라이트사에서는 일명 스펙트론 ILS시스템이라 불리는 비상전원장치를 개발했다.

이 비상전원장치는 연결된 기계에 교류전원을 공급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중앙배터리로부터 예비전력을 제공키 위한 회로가 작동된다.

또한 이 비상전원장치는 전자식 안정기를 이용한 조명장치, 출력시스템, 화재보호장치, 통신장치, 안전장치 등을 갖추고 있는 등 다양한 기능이 제공된다.

마이크로 칩 콘덴서

일본 무하라제작소(주)는 초소형으로 고용량인 상하 전극형인 적층 세라믹 마이크로 칩 콘덴서 「GM 250 시리즈」를 발매하였다.

이 제품은 사이즈 세로 0.5×가로 0.5×두께 0.35mm로 초소형인데 상하에 금전극이 있어서 다이



본드/와이어 본드 실장에 대응이 가능하다. 또 적층구조를 채택함으로써 단상 구조인 종래품에 비하여 용량이 비약적으로 향상하였다. 고용량화에 따라 바이패스 콘덴서용으로서 광통신 디바이스의 수광소자나 IC 패키지 내 베어칩의 측근에 배치가 가능하다.

제주 서귀포시에 소재한 대경전기안전관리공사 김대환사장이 개발한 다기능 정전피해 보호배전반은 낙뢰, 염해, 태풍 등 자연재해와 차량충돌사고 등 예기치 못한 원인에 의해 불시에 전기공급이 중단될 때 시설감골 등의 피해를 예방키 위해 신속히 하우스용 환풍기와 온풍기의 작동을 정지하도록 제작됐다. 또 전기공급이 재개되면 자동으로 모터를 가동시켜 줌으로써 하우스 설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회 원 (사) 소 식

대경전기안전관리공사 다기능 보호배전반 개발

갑작스런 정전으로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직접 현장에 가지않고도 호출기로 정전여부를 알 수 있는 기기가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전지역 전기인 조찬회

- 일 자 : 1996년 5월 15일(수)
- 장 소 : 대전 샬로호텔
- 참석인원 : 18명
- 회의주제 : 전기공사수주액 저조(충남도청), 대전경제살리기운동(대전시청), 전기사업법시행규칙개정 설명(기사협회)

인물포커스

윤갑구

윤갑구 협회이사

부부운동단체
ME후원으로
「부부의 날」 제정



우리나라에도 부부의 날이 제정됐다.

지난 5월 24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6천여 명의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부의 날 제정식은 범세계적 최대규모의 부부일치 운동단체인 월드와이드 매리지 앤카운티(ME)의 후원아래 개최됐다.

부부의 날을 제정한 장본인은 그동안 전기계에서 전기기술 발전에 공헌해온 윤갑구 협회이사(사진·에이스기술단 대표, ME서울협의회대표)로 알려져 전기

계에서는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윤이사는 그동안 전기를 비롯 첨단과학기술발전에 뛰어난 역할을 인정받아 경향 전기·에너지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는 전력기술관리법 제정과 전력기술인 교육사업에 정열을 바쳐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처럼 전기와 과학기술계에서 뚜렷한 활동을 보여온 윤갑구이사는 부인 김부희여사와 함께 ME서울협의회 대표로도 역할을 충실히 해 온 끝에 ME 서울대회를 열게 된 것이다.

윤이사는 이와 관련 「결혼과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혼과 낙태율이 증가하며, 영아 유기와 부랑아 및 청소년 문제가 야기되고, 가정파탄으로 병들어 가는 현대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결혼과 부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부부의 사회적 사명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어려해 전부터 부부의 날 제정을 제안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부부의 날 제정식은 「부부는 생명과 사랑의 원천이다」라는 주제로 열렸다.